

중구, 전통시장 상인 'AI 솜품' 장착 "당근마켓 보낸다"

중구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상인을 대상으로 「당근마켓 AI 솜품 제작 교육」을 운영한다. AI를 활용해 짧은 홍보 영상을 직접 만들고, 이를 당근마켓에 게시하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오는 19일까지 상인 30명을 모집한다. 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도 상인 역량 강화를 본격 지원한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크게 늘고,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 일상화되면서 상인들에게 온라인 마케팅은 필수가 됐다. 이에 구는 온라인 홍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인이 별도 홍보 인력이나 비용 부담 없이도 손쉽게 가게를 알릴 수

있도록, AI를 활용해 솜품 콘텐츠 제작을 돕는다. 특히 지역 기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콘텐츠를 올려 생활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단골고객' 확보에도 나선다. 이번 교육은 상인이 직접 점포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까지 '완성형 교육'으로 운영해, 교육 직후 곧바로 점포 홍보에 활용할 수 있어 즉각적인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교육은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3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1회차에서는 ChatGPT를 활용한 AI 이미지 제작, 2회차에서는 Vrew를 활용한 솜품 영상 제작, 3회차에서는 당근마켓 콘텐츠 업로

드 실습을 다룬다. 참여를 원하는 상인은 포스터 내 QR코드(02-3396-5057)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중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리다(LiDA, 리다교육컨설팅) 대표이자 한국산업표준자격인증원장인 박지희 강사가 맡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SNS·솜품 마케팅 교육을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을 살려, 상인 눈높이에 맞춘 실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구는 전통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인들의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용산구, 2026년 ‘용산만의 일자리’ 유관기관 하나로 뭉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지역 내 16개 민간·공공·학계 일자리 유관기관과 함께 '2026년 일자리 협력망(거버넌스)'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 기관 간 경계를 허문 단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용산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용산구 일자리협력망(거버넌스)는 2023년 11월, 지역 내 일자리 문제를 유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학 16개 기관이 뜻을 모아 출범했다. 참여 기관은 용산구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을 비롯해 ▲협력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 용

산구상공회) ▲교육훈련기관(숙명여자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서울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기관(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구립청파노인복지관,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시립다시서지종합지원센터, 용산지역자활센터,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등이다. 구 일자리협력망(거버넌스)는 지난해 총 5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기관별 강점 및 특성 등을 공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7개 협업 사업을 성공시켜 구민들에게 폭넓은 고용 서비스를 제공

했다. 실무회의는 분기별로 정례 개최해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반 시설과 홍보 역량 등을 공유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관 간 소통망을 활용해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023년 협약 이후, 기관들이 문턱을 낮추고 소통해 온 덕에 구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올해는 16개 기관의 전문성을 하나로 묶어, 용산의 변화가 구민의 일자리 행복으로 이어지는 고용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대문구 중·고생 진로 길잡이로 나선다, 대학생 멘토단 ‘와라커즈’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위탁 운영하는 진로직업체합지원센터 와라(이하 와라)는 동대문구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단 「와라커즈(WARAKERS)」 17기를 공개 모집한다. 와라커즈(WARAKERS)는 '와라(WARAK)'와 '-ers'를 결합한 명칭으로, 와라와 함께 청소년의 진로 성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번 모집은 동대문구 중·고등학생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진로 및 학과 정

보를 제공하고, 대학생 멘토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선발된 와라커즈(WARAKERS)는 지역 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및 학과 소개를 중심으로 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및 휴학생으로, 전공이나 학과에 관계없이 멘토링 활동에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활동에 참여하는 와라커

즈(WARAKERS)에게는 진로교육 및 멘토링 활동 경험 제공과 함께 활동비 지급, 활동증명서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 기간은 2월 23일까지이며,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은 3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상기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와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ddmwarak@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ETRI, AI 반도체 인재 양성 성과 가시화

市-ETRI, '20년부터 서울AI허브 중심 AI 반도체 설계 전문 교육 운영…평균취업률 88.3%

수료생, 산업 현장에서 핵심 인재로 활약…AI 기업 IPO·정부 육성 사업 선정 성과로 확산

2026년 과정 4.1~5.12. 교육생 모집… 서류·면접 평가 거쳐 6.22.~8.28. 운영 예정



서울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양성 사업이 높은 취업 성과와 기업 성장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서울AI허브를 거점으로 ETRI와 함께 'AI 반도체 설계 실무역량 강화 과정'과 'AI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운영해온 결과, 6년간 누적 교육생 1,769명, 평균 취업률 88.3%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역량 강화 과정'은 6년간 총 1,409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채용 연계 과정인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은

6년간 누적 수료생 360명 중 318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아울러 '전문 엔지니어 양성과정' 수료생을 채용한 기업 가운데 일부는 기업공개(IPO)에 성공하거나 정부 지원 사업인 스타랩리스(Fabliss)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산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오픈엠티테크놀로지, 아이씨티케이, 아이엔디바이스 등의 기업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수퍼게이트, 칩스엔미디어 등의 기업은 정부 스타 랩리스 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내 AI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은 산업계 전문가, 대학교수, ETRI 연구진

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가 직접 커리큘럼을 설계해 산업 현장의 수요와 연구 전문성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고가의 반도체 설계 툴과 실습 장비를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전문가 멘토링 등 실제 산업현장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25년 과정에는 총 420명이 지원해 약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발된 교육생들은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고성능·저전력 반도체 설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정을 이수했다. 교육과정 수료생을 채용한 AI 반도체 설계 기업 애임퓨처의 박재화 대표는 “서울시와 ETRI가 함께 운영하는 교육과정 수료생은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가능할 정도로 실무역량 완성도가 높다”며, “AI 반도체 설계 인력난 속에서 수료생들이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ETRI와 연계한 교육 과정은 25년간 축적된 ETRI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최초의 AI 반도체 전문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서울AI허브를 중심으로 AI 반도체를 비롯한 AI 분야 핵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AI 산업 생태계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장성 기자

설 연휴, 쓰레기 걱정 뚫… '청소상황실·순찰기동반' 풀가동

설 연휴 청소상황실 운영 및 순찰기동반·환경공무원 투입해 청소 민원 적극 대응

서울시는 설 연휴(2.14~2.18) 동안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과 환경공무원 등을 투입해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먼저 서울시는 연휴 동안 시와 자치구에 총 26개의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 연인원 731명을 투입해 청소 민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청소 순찰기동반은 매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도심지역과 가로 주변에 쓰레기 적적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환경공무원 연인원 15,137명(자치구 직영 및 대행)이 거리 청소하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쓰레기 관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에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일과 자치구 환경공무원 휴무 등으로 자치구마다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날짜가 다르다. 특히 동별로 생활 쓰레기 배출일이 다른 자치구가 있으므로 자치구 누리집 등을 통해 연휴 기간 쓰레기 배출일을 확인해야 한다. 연휴 기간 청소 관련 민원은 120다산 콜센터나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연휴 전인 13일(금)까지 시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된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여 자원회수시설 등 최종 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한다. 또한 자치구 누리집, 지역 언론매체, 사회관계망(SNS) 등으로 연휴 기간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을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쓰레기 배출이 제한되는 연휴 기간 전

쓰레기를 미리 배출하고, 배출 가능일 외에는 무단배출을 자제해야 한다. 한편 연휴가 끝난 19일(목)부터는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 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 수거·처리하고 자치구 여건에 따라 주민들과 함께 설 마무리 청소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이 쾌적한 도심 환경 속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자치구별로 상이한 쓰레기 배출날짜 준수 등 올바른 배출을 통해 일상 속 쓰레기 줄이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장성 기자

보행약자 사망사고 '0' 목표로 보호구역 관리 전반 강화

'26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발표,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약자 집중 보호

서울시는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최근 보호구역 내 사고 분석 결과 등·하교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되고, 이면도로 및 보·차 혼용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기반 구축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 시설 확충 ▲보호구역 인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 등 4개 핵심 분야(17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보호구역 관리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

설 현황 파악 후,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보행약자 인구 변화와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한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도 수립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둘째,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 포장 및 제한속도 하향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한다. ○(보도 설치 등 보행공간 확보 48개소)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단차를 둔 보도를 조성(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호보도폭 2m)하고, 8m 미만 또는 현상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36개소를 신규·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방호용 타미',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 시설을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을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등도 개선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 넷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해 사고 가능성을 줄인다.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도 운영한다. 이장성 기자



유망 분야



전통예술



스쿠버다이빙



택시 타고~



글로벌 언어



수리 융합과학



경기공유학교

지금 모집 중



우리 동네

경기공유학교

이게 되네?!

◆ 대상: 초3~고3 학생 및 동일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내용: 인성, 문화예술, 체육, 생태·환경, 진로, 인문·사회, 수리·융합과학, AI·디지털 등

◆ 방법: 경기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 경기공유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 운영되며 신청기간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3월부터 지역별로 본격적인 모집이 시작됩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승마/드론



반도체



경전철 타고~



자원공유



체험